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2월 23일(금)

(음력 1월 14일)

Пятница

23 февраля 2024 г.

№ 7 (1207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푸틴 대통령, 2월 29일 연방의회에서 연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2월 29일(목)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연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 측과 언론이 전했다.

2023년에는 2월 1일에 연례 연설을 했고, 2022년에는 연례 연설없이 <큰 역동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 이번 연방의회에는 연방 의회의원, 국가 두마의원, 정부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주지사, 지역 법원 대표, 정교회 주교, 지역 사회원 대표, 언론사 대표들이 연방의회에 참석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전 러시아 애국축제 일환으로 공연 개최

2월 21일(수) 크리스탈 스포츠센터에서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전 러시아 애국 음악축제 갈라콘서트가 열렸다. 러시아의 유명 스타들과 돈바스에서 온 음악인, 사할린 예술인들은 '영웅', '조국에 대한 사랑', '러시아 국민의 용맹스러움과 불굴'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2월24일(토)에는 '1(페르브)'방송을 통해 녹화된 대규모 공연을 방영한다.

사할린의 무대에는 소개도 필요없는 유명 스타가수들 샤만, 그리고리 렉스, 율리아 체체리나, 알렉산드르 부이노브, 올가 코르무히나, 세르게이 갈라닌과 그룹 '세르가', 알렉산드르 스크랴르와 그룹 '와-반크'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여러 번 돈바스에서 조국 수호자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치며, 장병들과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를 향해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싸우고,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사할린의 예술단들도 특수군사작전이 실시된 이래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찾아가서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했다.

사할린의 갈라-콘서트 공연장에는 사할린의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인 안톤 와실리예브는 갈라 공연은 응원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특수군사작전지역 장병들에게 사할린의 위문품 전달

<영웅들을 위한 온정> 전 러시아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이 참전장병들을 위한 위문품을 모았다. 이 행사는 <동참>지역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문품 모집은 조국 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이뤄졌다. 주민들은 특수군사작전지역으로 보낼 따뜻한 털셔타, 편지, 엽서, 식품세트를 가지고 왔다.

이외에도 <영웅들을 위한 온정> 행사에 32호 학교의 학생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직원들이 참여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2월 23일을 우리는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날은 전 국민의 기념일로서 조국에 대한 충성과 용맹함과 우리 국민의 대담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의 장병을 비롯해 러시아의 장병들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다시금 손에 무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걸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터였던 추드스코예 호수, 폴타와, 보로지노 마을 부근에서 적들을 물리쳤으며, 파시즘과 피비린내나는 전투에서 승리한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 모두가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참전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할린주에서는 2024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후방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승리를 가지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모든 참전장병들이 알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으로나, 온 마음으로 적과 전투하는 공동의 일에 기여하는 모든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과 대조국전쟁의 모든 참전용사들과 후방 근로전선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국 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동포 여러분, 조국 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 주제로 지역 간 포럼 개최

2월 20일(화) 제2회 국제포럼 <미래 의학, 인공지능(AI) - 우선순위>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포럼에 의료기관 및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 대부분 전문기관의 대표들을 비롯해 보건 및 첨단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직원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대적인 건강보존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의료 분야 사할린 국제포럼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포럼의 목적은 보건 분야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의 사례를 공유하며, 더 나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탐구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사할린주가 포럼 행사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적 성숙도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선두지역 중 한 곳으로서 2023년 11월에 사할린주는 국제 전시회에서 인정을 받고,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국가상을 수상했다.

포럼이 진행되는 3일간 참가자들은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지역들의 경험과 전망적인 계획들>, <컴퓨터적 시각>, <음성합성 및 인식>, <정책지원 시스템> 등 그의 여러 주제로 논의를 했다.

포럼 <미래의 의학, 인공지능- 우선순위>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유용한 기술적, 행정적 정책과 기술개발을 돕도록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된 사할린과 쿠릴의 정보분석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존하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은 정보자료 관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

남 위탈리 군병원장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

군병원 중령인 남 위탈리 아나톨리에위츠(1980년생)는 사할린 군병원 원장이다. 한인단체들이 사할린 군병원 환자와 의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 그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이 고려인 4세를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남 위탈리 중령의 출생지는 레닌그라드주 푸쉬킨시다. 푸쉬킨시에는 그의 부친이 졸업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농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부친은 대학 졸업한 후 이곳에 남아 슈호츠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농업대학교에서 교사직에 근무했다. 대학원도 졸업하고, 기술학박사도 따냈다. 그러나 위탈리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가족의 판단으로 위탈리의 가족은 모두 아버지의 고향인 날치크로 돌아갔다. 그리고 위탈리는 이곳 날치크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앞으로 미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과 의논 끝에 크라스노다르에 있는 쿠반 국립대에 입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고, 특히 좋아하지 않았던 생물학은 배울수록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첫 목표를 잘 달성하여 쿠반 의대에 입학하고, 거기서 내과를 전공했다. 이곳에서 4년을 공부한 후 2002년에 그는 사라토프 군의관과의과대학으로 전학했다. 그때 그의 성적표는 최고점수였다. 국립군의관과의과대학에서 먼저 전학 제안이 들어온 것이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다. 뭐든지 철저히 하

는 스타일이었고, 게다가 의학 전공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사라토프 국립군의관과의과대에서 인턴 과정도 마쳤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엔겔스시의 한 병원에서 많은 실습을 해왔다. 의사로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동부군사관구로 파견되어 첫 복무지는 연해주였다. 위탈리는 한 부대의 의사로서 현장에서 2년간 열심히 뛰었다. 전공이 내과였지만 그는 시술도 하고, 부상자도 봐주고, 이도 빼주고, 등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를 했다. 재미있었지만 의사로서 성장을 위해 세르게예브카 마을에 있는 군병원에서 진료 전문의로서 일하고 싶었다. 한번은 높은 직위의 장교에게 진료를 잘 해주고 그에게 이 바라는 바를 표명했지만 그 장교는 군병원으로 그를 보내지 않고 30명이 복무하는 의료소대장으로 임명했다. 그 당시 이 분대가 약한 점이 많아서 좋은 분대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남 위탈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년을 이렇게 뛰다가 그는 치타에 있는 특수의료분대장으로 진급되었다. 2015년에 이 특수부대는 시리아에서 4개월간 복무하였다. 이렇게 3년을 특수의료분대에서 근무하다가 해마다 이뤄지는 의무평가에서 키로브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의료아카데미 대학원(운영, 관리 과정)의 추천을 받아 2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다. 이를 마치고 그는 군병원 지도



자 자격이 생겼다. 군 병원장으로서 그가 처음 맡은 병원은 세르게예브카 군병원이었다. 거의 9년을 근무했던 이 지역에 돌아오게 되면서 세르게예브카 군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첫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알고 보니, 그 당시 군병원장 공석은 이곳 뿐이었다.

2021년 초에 부랴티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야전병원(현장병원)을 세울 것을 부대 측에 요청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남 위탈리 중령은 카흐타 지역으로 출장을 나갔다. 그곳에서 한 달 이상 있었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군병원 원장으로 부임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남 위탈리 아나톨리에위츠가 사할린에 온 지는 곧 3년이 된다.

임무에 집중하는 성격이라 의료적인 문제든, 운영적 문제든 사려깊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 회진도 하고, 군병원 원장으로서 금요일마다 보고회의를 하고,

월마다 큰 회의를 진행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군병원은 1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투루프 섬에 병원의 지부가 있는데 군인환자 외에도 소재하는 마을 주민들을 이곳 의료진들이 봐주고 있다.

군병원에 군의료진들과 함께 민간인들도 일하고 있다. 병원장은 일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인간적이며, 충분한 이해심을 갖고 일한다. 단,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고, 일에 최선을 하지 않은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 중령의 성품에서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며 지식도 풍부하고, 시각도 넓다는 게 느껴졌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무료로 다양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남 위탈리 병원장이 말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운명적이었던 세르게예브카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의 아내는 의무병 간호사다. 남 병원장은 아이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게 좋아한다고 한다. 10살이 된 아들은 로봇기술에 관심이 있어 이걸 익히고 있고, 유도도 배우고, 또 사할린에서 수영도 배웠고, 7세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가족 얘기를 하는 군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

고 있음이 느껴졌다. 휴가 때는 꼭 가족과 함께 날치크 부모님 댁을 찾아가 간다고 한다. 사할린에 부모님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좀 편찮으셔서 먼 길을 못이 가실까 하는 걱정도 했다.

전에 태권도를 배운 남 위탈리 중령은 사할린에 와서는 수영에 빠졌다. 매주 수영장을 찾아가간다고 한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빠질 수 없는 취미인 낚시를 하게 되었다. 그는 겨울 낚시, 여름낚시 다 좋아한다고 한다. 함께 이 취미를 즐기는 동료들도 찾았다고 했다.

사할린에 와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동포가 많은 것이다. 동포들이 이곳에 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마음에 뿌듯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 군병원 환자와 의사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반가워했고, 천영근 회장, 유 나탈리아 부회장(현 사할린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이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중령 남 위탈리 군병원장은 앞으로 박사는문도 쓸 계획이라고 한다.

본사는 2월 23일, 조국 수호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가 훈장인 피로고브 훈장, 국가에 대한 공로 1급 메달, 슈코브 메달, 군사적 용맹을 위한 메달을 비롯해 많은 훈장의 수혜자인 남 위탈리 중령에게 건강과 행복,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특수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애국 자동차 행진 개최

조국 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사할린에서 러시아 연방 군부대와 특수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자동차 행진이 개최되었다고 주최 측인 '소와' 수색구조대 및 지역 지프단체가 전했다.

2월 17일(토) 참가 차량들은 종대를 이루어 유즈노사할린스크 '게네랄'레스토랑에서부터 코르사코브 지역 '푸쉬스티' 간이비행장까지 행진했다.

애국 자동차 행진에 각종 자동차협회의 대표들과 오프로드 차량, 경량차, 사륜오토바이를 탄 사할린과 쿠릴 주민 수백 명이 참가했다.

올해 차량 행진의 특별한 점은 특별군사작전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수호하는 장병들의 친지들이 참가했다는 점이다.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 도착한 차량 행진 참가자들에게 사할린 지역의 예술단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전통대로 길거리 음식과 만화영화, 비상대책부의 전시회, 군인들을 위한 위장장물을 엮어보고, 특수군사작전 응원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천막 행사가 마련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автопробег в поддержку спецоперации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автопробег, посвященный поддержке спецоперации 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Ф.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й отряд «СОВА» и джипер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 17 февраля колонна из машин-участников проследовала от "Генер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Участие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автопробеге приняли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реди н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люди на внедорожниках,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ях и квадроциклах. Отличием автопробега в этом году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защищающих границы России на СВО.

По прибытии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участников автопробега ожидал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 традиции была полевая еда, аниматоры, выставка МЧС, палатка, где можно было связать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написать письмо со словами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ам СВО.

Сажалин 비상대책부, 떠내려간 빙하에서 82명의 낚시꾼들 구조

사할린 비상대책부 직원들이 떠내려가는 빙하에서 82명의 낚시인들을 구조했다. 오후 초코에 해안 구역 스타로둡스코에 마을 부근에서 너비 50m의 빙하가 떨어져가고 있었다. 해안에서 1km 떨어져간 빙하에는 80여 명 이상의 낚시인들이 있었다고 사할린주 비상대책부가 전했다.

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14명의 전문가들과 8대의 장비가 출동한 가운데 낚시인들은 배로 구조하고, 러시아 비상대책부의 Ми-8 헬리콥터도 구조에 나서며 82명의 낚시인들을 모두 후송해 해안가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이 구조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전해졌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России спасли 82 рыбака с оторвавшейся льдины

На Сахалине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России спасли 82 рыбака с оторвавшейся льдины. Отрыв ледового поля шириной 50 метров произошел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в районе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е. В километре от берега оказа-

лись более 80 рыбаков, сообщает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месте ЧП работали 14 специалистов и 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Любителей рыбалки спасали на лодках, также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вертолет Ми-8 МЧС России. Эвакуировали и доставили на берег 82 человека.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т. Спас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длилось около четырех часов.

지역 전통에 대한 전시회, 사할린의 학생 3천여 명 방문

〈사할린의 전통, 우리의 자랑거리다〉전시회에 사할린의 학생들 3천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포베다' 전쟁기념박물관 측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3주 동안 사할린 지역의 학생들은 사할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알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극동지역이 언제 해방되었으며, 사할린과 대륙간 뱃길을 누가 열었는지 알아보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의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전시관을 통해 사할린 지역의 선도산업들의 발전을 알아보고, 선박의 종류와 시추선, 새로운 주택단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Больше 3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 о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ях

Больше трех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и посетителями 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8면에 계속)

새롭고 널찍한 공간으로 이전한 사할린주 아동도서관 55주년, 개관일 기념

예전 주 아동도서관은 다세대주택 안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강당, 멀티미디어 서고와 새로운 서적들이 배치돼 있는 새로운 도서관 자체 건물로 이전했다. 아동도서관 신관은 예전 도서관 면적보다 7배나 넓은 가운데 2월20일에 신관에서 주 아동도서관 설립 55주년을 맞았다.

12,000명의 책을 좋아하는 아동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은 프로젝트 미라 거리 24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개관식 붉은 리본 커팅식에 아동도서관의 가장 적극적이고, 성실한 독자인 아르쭘, 안나, 제니스가 참석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축하하며 "도서관은 아파트 벽 뒤로 열려진 신비한 세계이다. 이곳은 단순히 독특한 지식의 저장고만이 아닌 교육 및 계몽센터이기도 하다. 이제 아동도서관에는 밝고, 넓은 공간이 있으며, 아동과 함께 하는 현대적 체험활동을 도입하고,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회가 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게하고 그들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켜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관 아동도서관으로의 이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국가계획 덕분에 가능했다. 신관 이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러시아 국립 아동도서관의 안젤라 레베제와 제1부관장과 시인이자 러시아 연방 공훈예술활동가인 블라디슬라브 말렌코가 참석했다. 2000m²의 공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당, 대통령 도서관과 '리트레스' 아동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센터와 '사할린 인류학' 센터가 있는 향토연구실이 있다. 강당은 현대적인 종합멀



티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1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고, 이곳의 모든 도서들은 독자들 누구나 볼 수 있다. 아동도서관에서는 작가와 화가와의 창작적 만남, 활동교실, 문학축제 등 수십 개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진행되며,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찾도록 가르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동포 정착에 힘 보탬" 특별법 개정 약속한 경기도의회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할린동포법이 논란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건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사할린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염중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수원7)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민·남양주3) 의원, 김철진(민·안산7) 의원과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이수진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명예회장,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주훈준 안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장, 채신자 김포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지난달 10일 통과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조례'는 사할린동포 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조례"라며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 땅으로 강제 징용된 동포를 말하며, 이들은 2020년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매년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는 총 1천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조미자 의원은 사할린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0일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 상황이라



동포 손맞잡은 염중현 도의회 의장 염중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정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2.20 /최은성기자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사할린동포 이수진 회장은 "러시아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지만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국회에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나서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구 대표 역시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주귀국 대상자가 사할린동포 1세에서 2세, 3세, 4세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대를 구분 지어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정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3월부터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축제 개최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등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사할린주, 새 진료소 5곳에 건설

사할린에 5개 진료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설자금은 예산 외 기금에서 배정됐다고 주정부 측이 전한 가운데 현재 첫 대금이 지급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3개 진료소, 달네에 마을과 호무토워에 2개 진료소가 건립된다. 2개 병원은 아동을 위한 특화 아동병원이 된다.

건설 완공은 2025년 11월1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총 면적은 4만5천m²이다.

모스크바에서 한-러 콘퍼런스 개최

지난 2월 15일(목) 모스크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과의 효율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제1회 한-러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콘퍼런스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모스크바),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이 주최했다. 모스크바 행사장에는 한국 측을 대표해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러시아와 한국의 주요 학자들은 이날 19세기 이후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의 역사에서부터 한반도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국가 간 관계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콘퍼런스에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학술편집부 부장인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는 알리나 사라페디노와 학자의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인도주의적 협력: 현황과 전망> 발표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박사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러시아에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되지 않은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했다.

(본사 기자) (사진: 진 율리아 제공)

사할린 한인사회계 소식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강수복 회장, 국가두마 의원 감사장 수여

지난 20일(화) 우글레고르스크를 방문한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게오르기 카를로브는 적극적인 시민활동과 교육행사 조직 협조로 우글레고르스크지역 한인회 강수복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실 이 단체에서 특수작전 위해 지속적으로 위장망을 만들고 있고 현재 22번째 위장망을 만드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모임 개최

지난 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 모임이 있었다. 계획대로 모임이 2월 3일 있어야 했으나 폭설로 인한 후과처리작업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날 노인정을 못 찾겠다는 연락을 받아 주최 측에서 음력 설맞이 모임을 17일로 연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명절상을 받고 즐겁게 노시는 할머니들은 이날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으로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았고,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에서 대표로 나온 김 라이사 임원은 모든 어르신들께 쌀 한 포대씩 선사했다. 또한 이날 오춘자 할머니의 생신 90주년도 함께 축하하였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Москве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15 февраля 2024 г. на площадке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в г. Москв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иск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Москва), Университет Чосон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Кванджу (Южная Корея). Из Кореи на конференцию в Москву пришло 10 человек.



Темы выступлений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ведущие россий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 варьировались от историограф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XIX в. до глобальных вызов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ходе дискуссии участники отметили важную роль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возможно их существенное потеплен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к.и.н. Юлия Дин, заведующий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на выступила в качестве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докладчика Алины Шарифетдиновой «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Юлия Дин отметила несомненную важность все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о мнению историка,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й не позволяет существенно ухудшатьс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является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ск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менно диаспора является тем мостом, который связывает Россию и Южную Корею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ых глобальных вызовов.

Наш корр.

Анонс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ройдет выставка-дегусти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чая

24 февраля, в субботу,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в музе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дегустиация «Традиции и секреты корейского чаепи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 Ханнин») приглашаю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радиция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сервировки, оценить тонкий вкус зеленого чая и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ладости. На память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сделать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ематическую открытку с элементами каллиграфии.

Площад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11:00 до 17:00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художника Дё Сон 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ект «Связь времен: время первых. Отражение прошлого в настоящем». На выставке, котора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екта, посетител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могут увидеть работы соврем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с 17 февраля по 16 мар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ряда мероприятий. Одним из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нет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Дё Сон Ен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лекционном зал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25 феврал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16 часов.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Дё Сон Ен расскажет о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основных проектах и выставках.

KDI предлагает изменить пенсионную систему

Если не вносить изменения в пенсионную систему, то в 2039 году объём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К достигнет максимума, после чего начнёт сокращаться, а к 2054 году будет истощё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выплату пенсий по нынешним стандартам, пенсионные взносы нужно повысить на 35%, что станет серьёзным бременем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1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развития (KDI). Эксперты института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отказаться от действующей системы выплат пенсий за счёт работающих. В институте предлагают ввести новый форма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пенсии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из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накоплен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змер пенсии составлял 40% среднемесячного дохода по стране, размер пенсионных взносов нужно увеличить с нынешних 9% до 15,5% заработка.

KBS World

Письмо в редакцию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воих предков должны быть защищены

В № 44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за 17 ноября 2023 г.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статья «Не делайте из нас людей, не помнящих родства», посвященная мемориальным табличкам, размещенным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м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сем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еня, как корейца, у которого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аходятся могилы предков, глубоко возмущает тот факт, что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священном, по словам его создателей, «безрод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имена моих родных. Случаи такого рода были корейцами замечены неоднократно.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никаких сведений о проведе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и точно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актах о людях, имена которых помещены на табличках, создател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ника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е было. А значит, данный список был составлен по изучению памятников на кладбищ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стым методом переписывания имен и дат, без попытки выяснить кто из упокоившихся был «безродным» или н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ерез «записывание» всех умерших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в «безродных», не имеющих семьи, потомков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оздател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нас всех делают «безродными» и отрывают нас от земли, где покоятся наши предки. Если все они, погребенны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теперь «безродные» - то и мы тогда тоже? И имеем ли право называтьс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ритуальные обряды и тради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поминовением духов умерших предков, уход за могилами имеют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проводят определенные ритуалы, но считают их личным семейным делом, куда не допускаются посторонние. Передача или делегирование прав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помин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икогда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как возможная ни в моей семье, ни в других семья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какому праву совершенно неизвестные нам посторонние люди совершают дей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их предков?

Также размещение любых сведений о частных лицах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оглас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запрещено зако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здатели Мемориал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 проверку всех имен,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в здании. Я считаю неприемлемым такое наруш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в и неуважен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Тот способ, который избрало руководство Мемориала, чтобы якобы «оповести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своих действиях, недостаточны. Направление списка с фамилиями, именами, датами рождения и смерти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адрес только некоторых 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предлож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аправлять возражения на адрес «РосАгро» вместе с подтвержда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дел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ым какое-либ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теми, кто занимался постройкой и наполнением Мемориала. Именно руководство Мемориала должно найти и оповестить все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ли наследников людей, личные данные которых они размещают, взять с них письменное согласие на размещение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а ес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ет – предоставить об этом исчерпывающи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Исходя из этих мыслей, я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аписать запрос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комнадзора,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арушение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 к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меня и солидарен с моей позицией, могут подписать составленный адвокатом запрос. Со мной можно связ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8-914-756-5469.

Вениамин Пак,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 и не дождался встреч с близкими

Сеул, 19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может связаться с более чем 80 процентами тех, кто подал заявления из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семей со своими разлученны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заявило, что ему удалось связаться со 146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825 человек, с которыми оно связалось в США и Канад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во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53 годов разлучила их более чем на 70 лет, многих из тех, кто не откликнулся на запрос министерства, возможно, уже нет в живы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екабрь 2023 года 94 391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133 984, или 70,4 процента, заяви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умерли, по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проведенному в тот же день, 91 процент из 119 заявителей в США или Канаде заявили,

что хотят знать, живы ли члены их давно потерянных семей на Севере, в то время как 84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хотя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и лично.

Поскольку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признаков улучшения, надежды таких семей н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тускнеют с каждым днем.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более 65 процентов заявител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и 80 лет и старше. Со времени первого саммита Сеул-Пхеньян в 2000 году обе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21 раунд 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емей, включая последнее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С тех пор почти все формы обмена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В 2022 году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вон Ен Се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ей, но без ответа.

Впереди планеты всей

Сеул, 20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лидером по скорост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среди крупнейш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 ее технология 5G также признана самой быстрой в мире. По данным OpenSignal, британск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самая высокая скорость загрузки с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 140,2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Мбит/с) в период с ок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25 стран региона. Сингапур, вторая по скорости страна в регионе, зафиксировал скорость 71,1 Мбит/с, что почти вдвое меньше скор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За ней следуют Австралия со скоростью 58,5 Мбит/с, Тайвань со скоростью 55,7 Мбит/с, Индия со скоростью 51,5 Мбит/с и Китай со скоростью 50,5 Мбит/с. Япония заня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регионе со скоростью 46,7 Мбит/с.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значительное улучшение скорост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заняв третье место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 увеличением на 14,8 Мбит/с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исследованием. В Европе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скоростями связи могут похвастаться Норвегия (102,3 Мбит/с), Дания (98,8 Мбит/с), Нидерланды (81,7 Мбит/с) и Финляндия (71,6 Мбит/с). Дания, Финляндия и Норвегия также лидировали по увеличению скорости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25,5 Мбит/с, 17,7 Мбит/с и 16,5 Мбит/с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то касается средней скорости загрузки данных в 5G,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самой быстрой в мире — 436,7 Мбит/с,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опережает Европу и страны Совет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ССАГПЗ). По доступности 5G у Индии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 44,3 процента и она лидирует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и других обследованных странах. Юж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 показателем доступности 38,3 процента, за ней следуют Сингапур (33,3 процента) и Таиланд (24,8 процент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назревает кризис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рупные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е больницы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РК уже второй день отменяют плановые операции, переводят ряд пациентов в другие больницы и отказывают в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з-за того, что персонал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21 февраля, 8.816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71,2% их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я об увольнении. Хотя заявления не были приняты, 7.813 человек оставили сво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еребои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продлено время работы 9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больниц. Кроме того, гражда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нимают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12 военных госпиталей. Между тем,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заявила, что массовые акци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отменит план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ответ заявляет, что увелич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медицина катастроф, педиатрия, акушерство и неотложная помощь. Кроме того, количество враче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является в РК одним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среди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В РК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едлагает отмечать ежегодно 14 июля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Ким Ён Хо, выступая 21 февраля на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работы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облемам выходце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влечению интереса к северянам, перебравшимся на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ата 14 июля выбрана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т день в 1997 году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адаптации и защит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ил их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Все жительницы Сеул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слеродовую субсидию

Всем жительницам Сеул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рока проживания в городе, в случае рождения ребёнка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субсидия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вон (753 доллара). Как сообщили 13 февраля в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программа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городского проекта поощр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Субсид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виде ваучеров, помогающих покрыть расходы на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матерей и младенцев, включая послеродовую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уход. До сих пор такую поддержку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только матери, прожившие в Сеуле боле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ЧМ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 16 по 25 февраля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командный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26 года, в РК организованы впервые. В ни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орока стран. Они разыгрывают два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 среди мужских и женских команд. Выход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ы в четвертьфинал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валификац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2024 года в Париж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ужская команда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Берли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ять фильмов из РК

15 февраля открылся 74-й Бер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по 25 февраля. В этом году в нём участвуют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 основном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Потребност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Начиная с 2008 года на фестивале в Берлин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шесть фильмов режиссёра, и он получил четыре награды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Комедийный боевик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4» включён в специальную Гала-программу, а мис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приглашён в секцию «Форум», где демонстрируются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Всё в порядке» покажут в разделе «Поколение», а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Круг» - в разделе коротких фильмов.

Samsung Electronics 18 лет лидирует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телевизоров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18 лет подряд сохраняет лидерств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телевизоров. По данны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Omdia,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го маркетингово-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на глобальном рынке электрони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елевизор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гиганта заняли 30,1%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ещё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LG Electronics - 16,3%. На третьей позиции китайская компания TCL - 10,7%. Далее следуют Hisense - 9,5%, Sony - 6,3% и другие.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о всём мире было продано 201 млн 350 тыс. телевизоров. **RKI**

Пхеньян и Сеул развернули борьбу за союзников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заявила, что Пхеньян хотел бы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Токио и готов принять в гост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у.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 фоне сообщен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Гаваной.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общили, что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ют за ситуацией", полагая, что КНДР пытается вбить клин в складывающийся в регионе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союз с участием США,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и сестры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опубликова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Ким Ё Чжо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сделанное еще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ы, когд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чувств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ить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Если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емьера Кисиды означает искреннее желание решительно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гнета преж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то нет причин, чтобы не оценивать это положительно", - цитирует ЦТАК Ким Ё Чжон, которая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Пхеньян и Токио вполне "вместе могут открыть новое будуще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Далее Ким Ё Чжон прогнозирует, что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прийти день, когд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сида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Вместе с тем, Ким Ё Чжон указала, что для подоб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Япония не поднимала "уже решенную проблему похищенных японцев", а также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проблематику КНДР. Сестра вождя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выражает "только личное мнение" и пока она не видит призна-

ков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контактах со стороны официального Токио.

Данный ход со стороны Ким Ё Чжон вызвал активные спекуляции в Сеуле. Хотя Ким говорит о "личном мнении", но понятно, что чиновники такого уровня, и уж тем более в КНДР, не занимаются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 подобным вопросам, не получи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это со стороны вождя.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сходятся во мнении,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НДР, пытается вбить клин в трехстороннее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гионе между США, Япон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хеньян недав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заявил, что не намерен иметь ника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Сеулом, считает РК "врагом № 1", игнорирует призывы к диалогу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а, но вот в сторону Токио идут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послы. Тут также можно вспомнить, что после недавне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Япони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направил официальны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народу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пожелав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правиться от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ого бедствия. В МИД РК сказали, что "внимательно отслеживают и анализируют повед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МИ Юга также высказывается мнение, что все это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ответом КНДР на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убой. Последняя всегда была преданным союзником Страны чучхе,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РК развил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стремясь установить отношений с Кубой. При этом открыто признается, что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подобного шага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желание внести разлад в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Гаваной. 14 февраля МИД Кубы и РК заявили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руг с друг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КФА досрочно расторгла контракт с тренером футбольной сборной РК Клинсмманном

Корейская футбо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ФА)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досрочно расторгнуть заключенный с немецким специалистом Юргеном Клинсмманном контракт,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он должен был работать на посту главного трен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футболу и подготовить ее к финальной части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2026.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в пятницу 16 февраля лич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КФА Чон Мон Гю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закрытого заседания исполкома ассоциации. Чон пояснил, что причиной для такого решения стали действия тренера по руководству командой, управлению игроками, а также его личное поведение, "которые не отвечали надеждам" болельщ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Южной Кореи. Чон Мон Гю такж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нес извинения за ту шумиху и скандал, которые возникли вокруг сборной по итогам ее неудач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Кубке Азии в Катаре.

Напомним, Юрген Клинсмманн возглавил сборную РК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тренера год назад -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2023 г. Контракт был заключен на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до финала ЧМ по футболу 2026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ША, Канаде и Мексике.

Однако сборна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футболу неудачно выступила недавно на Кубке Азии в Катаре. Она вышла из группы со второго места, а затем в двух по-

следующих матчах буквально на последних минутах "вытащила" победы у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и Австралии. В полуфинальном матче со сборной Иордании корейцы уступили со счетом 0:2, проиграв арабской команде по всем показателям.

Затем разразился скандал, когда СМИ выяснили, что в сборной накануне игры с Иорданией случился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лидером команды Сон Хын Мином и молодым игроком Ли Ган Ин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тасовки у Сона были травмированы два пальца. Старшие игроки сборной обратились к Клинсмманну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странить Ли от игры за нарушение дисциплины, но тренер предпочел оставить всё как есть.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тили, что по ходу матча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игроки плохо контактиру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а это сказывалось на игре.

Немца также обвиняли в том, что он мало проводил времени с игроками, часто находясь за рубежом, не смог быстро урегулировать конфликт внутри коллектива. Хватало претензий и по части подготовки команды, оборона которой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регулярные сбои. Масла в огонь подлило поведение Клинсмманна в том числе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в Катаре. По прибытии в Корею он улыбался, не высказал особых сожалений по поводу общего итога выступления, а, наоборот, пытался убедить, что все прошло не так уж и плох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ку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окоряет планету

Сеул, 17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высит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во всем мире, открыв к 2027 году 100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отмеченных звездами Мишлен, по всему миру,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нистр Сон Ми Рен заявила,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увеличит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за рубежом до 15 000 и создаст отд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по всему миру, которые будут указаны во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м ресторанном путеводител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в мир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31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отмеченный звездами Мишлен, в том числе 14 в Сеуле и 11 в Нью-Йорке.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здало группу из 24 экспертов, чтобы придумать способы повысить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людей, разрабатывающих и продвигающих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это повысит потенциа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академий страны,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увеличив их количество с пя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 восьми к 2027 году. Это также увеличит в четыре раза число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которое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250.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заявило, что оно будет поощрять престижные кулинарные институты за рубежом к запуску программ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года, когда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двух разных школах,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величение их числа до пяти к 2027 году. Ведомство также обновит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100 лучшим корейским продуктам страны и включит в него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оветы, например, как правильно их употреблять и как сочетать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корейским алкоголем. Будут также продвигаться 10 корейских термин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блюдами,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х корейские названия и произношение для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 всем мире. В мар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явит список 50 лучших ресторанов Азии для туристов. Каждую осень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глобаль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и приглашать к участию экспер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5 совре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тро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чет привлеченных средств

Сразу 5 совре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тро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чет привлеченных средств. В рамк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уже выдан первый транш.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обытие. Нам нужно больше соврем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комфорта, с хорошим оснащением. И скоро у нас появятся 5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кт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й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азпромбанк, #МЕГАИГРОК на рын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ООО «ГП 12» —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ектная компания,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й выступают ООО «К1 Концессии» и ООО «ИГЧП» (входит в конурт Газпромбанка), подписали кредитный договор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яти поликлини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выдача первого транш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механизму концессии, три поликлиники будут возвед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ве из них — детские. Одна —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ругая в селе Дальнем.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Хомутово» возведут поликлинику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Еще одно учрежде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явится в Углегорске. А холм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получит новое здание. Совокупная площадь объектов составит около 45 тыс. м². Ввод объектов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не позднее 1 ноября 2025 года.

Помимо роли финансиру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участия в капитале компании-концессионера, Газпромбанк выступает финансовы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проекта.

— Будучи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на рынк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Банк уже давно укрепляет свои позиции в област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ступ к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Уверена, что участие Банка в создании крупн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потенциал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вице-президент —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Светлана Ляпина.

Более 40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ыйду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объ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т каждого район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на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во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весной.

Всего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ыдвинул 43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т всех 18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идей предлож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осемь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Макаровский район с тремя проектам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сталь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направили по два предложения.

Среди них — обновление сквера Рыбаков и стел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трети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арка Победы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береговой линии в Головинно. Холмск выдвинул проект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квере имен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Е. Валентеева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улиц Матросова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Для охинцев предлагают преобразить городской сквер у площади нефтяников и сквер за стелой-панно в честь 50-летнего юбилея объединения «Сахалиннефть». В Томари хотят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ривокзальную площадь и пешеходную зону на улице Новой.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люб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е может проходить без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самих жителей. Именно они делают выбор и влияют на то, какой проект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 отлич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этих целей,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воего района и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4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стали жители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Чтобы поощрить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втор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 Если мы хотим создавать вокруг себя комфортные и краси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то, я считаю, что мы должны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Не надо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в вопрос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ожно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проекты дома и направлять сво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Сейчас это все доступно и открыто,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ксим Иванов.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

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и села,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154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и.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передовая медицинская клиник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клиники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на Сахалине. В н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клинике, которая заработает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для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сложны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перации без выезда за предел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артне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здании клиники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ыступит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холдингов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АО «Медскан», имеющий широкую сеть клиник в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Их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лагают полный спектр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передовым мировым протоколам. Работать в новой клинике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т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твердившие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снащенного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семизэтаж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рпуса. Мощность 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и внедр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самого передового уровня. До приема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остались считанные месяцы — открыть клинику должны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 Мы ориентируемся на самый передовой опыт,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ля этого внедряем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перации, чтобы пациента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выезжа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на материк. Мы готовы сотрудничать не тольк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о и крупными частн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ющи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токолы.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рименении этого опыта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й клинике в амбулаторных условиях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ак онкология, кардиология, хирургия, травматология и ортопедия, флебология, неврология, эндокринология, акушерство и гинекология, а также функциональная, ультразвуковая и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 В каждом из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й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борудование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имеющихся на сегодня методик,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Маяк Анива отремонтируют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Облик маяка Анива планируют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к середине ноября. Ремонт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чнутся, ког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Ф передаст объект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Форма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этой весной. Также в план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ыполнить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Ранее передать маяк Анив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держ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Маяк Анива — одна из визитных карточек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любимая всеми жителями. Во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маяк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поднял в 2020 году, и вот он решен.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его аутентичность, привести в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архитектурный вид. Делать это следует со всем уважением к истории. Для такой большой и ответ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лечь экспертов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том числе — краеведов,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нимаем, что работать придется быстро и эффективно, со вс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Работа над необходимой документацией уже идет. Многие процессы следует запускать параллельно. Намерены завершить наружные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к 15 ноября.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завершается навигация судов,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Специалисты не только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облик сооружения, но и сделают объект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для приезжающих к нему на экскурсию.

—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назревшее и необходимое решени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ва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бъект. С другой, это не менее важ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который требует к себ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ть его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объект, но и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на данном сооружении. Те мероприятия, о которых сегодня идет речь, необходимо реализовать. Важно, что получилось сдвинуть с мертвой точки передачу маяка из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региона, без этого решения его ремонт был невозможен, — подчеркнул Юрий Алин,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Маяк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имволов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браз монументаль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используют в фильмах,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ах и даже в компьютерных играх. Уже сейчас маяк Анива входит в топ туристических локаций, которые стремятся посетить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но и туристы. Уверен,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оведенным работам по е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они еще долгие годы смогут любоваться красотой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загадочных и известных маяков в мире,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Артем Лазарев.

В Синегорске и Аниве рекультивируют свалки

Эти свалки не эксплуатируются почти пять лет, так как перестали отвечать требованиям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и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культивация объектов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Сегодня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свалок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в Синегорске и Аниве проход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экологическую экспертизу в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е. В Синегорске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4 году, в Аниве — в 2025-ом.

Проект рекультивации свалки в Ани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террикона —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озвышенности, устройство двухслойного гидроизоляционного экрана в основании котлована, создание верхнего изоляци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установка систем сбора и очистки биогаза, а также этап биологической рекультивации —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рушенных земель.

— Свалка,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недалеко от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 это пережиток прошлого. Она портит общее впечатление гостей от города, а также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настроении и комфорте его жителей. Поэтому мы очень рады тому, что свалки скоро не будет,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Анивы Максим Быстров.

В отношении небольшой свалки ТБО Синегорска проектными решениями предусмотрен вывоз отходов с территории объекта и дальнейшая рекультивация нарушенных земель.

— Процесс оздоровления участка, на который свозили отходы, длительный и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этапов. Скопившиеся отходы необходимо изолиров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они не заражали почву, воду и воздух. Проводимая работа — важный шаг для защит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островов и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Ли.

В 2023 году заключены ещё два контракта на разработку проектно-сме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свалок в Ки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Макарове. Уже выполнены инженерные изыскания,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находится в стадии разработки.

Напомним, пров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е полигонов ТКО, рекультивация». Согласно документ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рекультивировать 12 свалок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означ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й ГРЭС-2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днял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й ГРЭС-2.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ращивания генерирующих мощностей связана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 ростом потреблен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опрос был поднят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иколая Шульги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регион.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фера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пущен процесс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рт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производств. Уж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нам по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их дефицит может стать тормозо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Ведь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а область делает ставку именно на него, всегда энергозатратн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такой точкой зрения согласен и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иколай Шульги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нагрузки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безусловно,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енерации.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прирост нов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нужно хорош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 рассчитать требуемый объ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генерирующей мощ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Минэнерго России Николай Шульги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й ГРЭС-2 обеспе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рост мощности, которой хватит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растущих потребностей региона и реализуем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омним, ГРЭС-2, расположенную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19 году. Ее оснастили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учл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острова. Возводить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в Ильинском начали в 2015 году. В пиковые период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трудились д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вод объекта позволил закрыть старую станцию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올해는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의 해"

고려인, 사할린, 중국동포 등 세계한인사회와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기념사업 추진위 발족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가 2월 22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추진위 구성과 사업계획 설명, 선언문 낭독, 축하 공연 등을 펼쳤다.

러시아 문헌기록에 의하면, 1863년(철종 14년) 연해주 지신허에 조선인 농가 13가구가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이어 1865년(고종 2년)에 60가구, 그 다음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명에 달하는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해 살았다.

이에 (사)동북아평화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2004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고려인문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자동차 랠리 평화 대장정'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160주년을 맞는 2024년 올해 기념사업은 '세계 고려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K-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이다.

우선 행사 명칭을 '고려인 이주에서' '고려인/한인 이주'로 명칭을 확대 변경하고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와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 - K-CULTURE with 유라시아' 슬로건으로 하여 고려인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세계한인사회가 다같이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요행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 (1)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국내외 단체 및 인사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대중성, 다양성, 주체성을 확보하고 △ (2)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행사-고려인이 지켜온 한민족 전통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어울림 축제 한마당과 고려인이 주체가 되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자축

하는 기념 행사 마련, 고려인 화합과 연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 (3) 한인 이주 160주년 K-CULTURE with 유라시아 - 동북아 한민족이 함께 참여하고 청소년 및 청년 세대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으로 한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정착을 알린다. △ (4) K-마켓 & K-CULTURE 전시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펼친다.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은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너머, 동북아평화재단 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제천시, 안산시 등이 후원한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국회의원 대표로 이명수(국민의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맡았다.

추진위 참여 주요인사는 이부영 전 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 소장, 장치혁 고려학술재단 이사장, 강 니콜라이 세르게이비치 연해주 동북아평화재단 설립자, 정태익 전 러시아대사,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 전 총장, 김원식 원로 목사 등이 참여하고 40여 개 동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시민단체 대표 임채완 공동추진위원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전세계 700만 재외한인사회의 역사적 모태가 되었던 연해주 한인이민사는 우리 민족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평화·번영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2024년 올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 어려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16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과 세계한인이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선언문] '유라시아 평화협력은 세계 한인 네트워크로부터'

K-CULTURE with 유라시아

전세계 700만 재외한인사회의 역사적 모태가 되었던 연해주 한인이민사는 우리 민족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평화·번영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동북아평화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2004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고려인문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자동차 랠리 평화 대장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24년 올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 어려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16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과 세계한인이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뿐만 아니라 세계 한인사회, 대한민국 정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더불어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와 동반성장, 문화교류와 세계시민, 유라시아 평화와 협력 등 전 지구적 가치와 아젠더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2024년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은 '세계 고려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이고, 대회 슬로건은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와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으로 했습니다.

우선 대회 명칭은 '고려인 이주에서' '고려인/한인 이주'로 변경했습니다. 1863년 조선인 농가 13가구의 연해주 이주와 정착은 근현대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인 이주의 첫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는 과거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지금은 모국 사회와 연계해 경제·문화 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경제·문화 공간을 갖게 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동시에 세계 평화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입니다. 우리의 공동 문화 자산인 K-컬처, 한류가 자랑스럽게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문화로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

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이에 유라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K-Culture with 유라시아'를 올해 160주년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기념식, 포럼 및 세미나,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재외한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세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행사는 특히 차세대들이 한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역할을 일깨울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도 선보일 것입니다.

2024년을 맞아 개최될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의 문화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을 심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현재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있는 많은 내빈들께서 '한인 이주 17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국내, 가나다 순): 경북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고려사람 협동조합, 고려인지원연대'아리랑', 광주고려인마을,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의회,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다모여 협동조합, 당진합덕고려인마을, 대구봉산문화회관, 대한고려인협회, 대한사랑회, 더큰이웃아시아,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동해동북아포럼, 부산YMCA, 삼강포럼, 상생통일충남연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곡고려인문화관, 월드코리아,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이주동포정책연구원,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한인학회, 재한동포문인협회, 재한동포연합총회,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조선대동북아연구소,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청소년미래연구회, 최재형기념사업회, 충남국제교류협회, 충북소상공인연합회, 포승고려인마을협동조합, 한백통일재단, 한류열풍사랑, 흥범도기념사업회, 희망레일, KIN(지구촌 동포연대),

Geumsan Ginseng
맛있는 홍삼, 디저트 홍삼
여기 다 모였다

가다롭게 키워낸 금산 인삼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Geumsan Ginseng & Herb Development Agency

아침마당홍삼
ACHIMMADANG RED GINSENG

에너지 UP 인보삼
Achimmadang Inbosam
Made in Korea

인삼이 통째로 원기삼
GIN COOP
Geumsan Ginseng Cooperative

맛있게 즐기는 홍삼
SAMIYA
Korean Ginseng Food
삼이아푸드

홍미락 김말홍삼
주 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 1길 103-4
연락처: 041-754-2325 / 이메일: gincoop@daum.net

주 소: 충청 금산군 금산읍 비산길 20
상담/주문 전화: 010-8866-0700 이메일: mylove2208@naver.com

'오스트로브나야' 육계 양계장 곧 사업재개

'오스트로브나야' 육계 양계장의 작업이 곧 재개돼 육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육계의 검체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육계농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며칠 전에 사할린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산란 닭들에게서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 조류독감과 관련해 필요한 예방, 진단, 조류독감 확산 방지 및 감염담 처리에 따른 통제 및 특별 조치가 실시되었다. 사할린주 정부와 전문 방역당국은 가장 중요한 양계기업들 중 한 곳에서 실시간 감시 속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달걀 생산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담들을 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된 곳에 살균작업이 진행되었다. 양계장 건물과 구역 폐쇄살균 및 세척

에 따른 대규모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 산란담 양계장에 감염요소를 제거한 후 곧 식용란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계업체 측은 달걀 생산을 위해 다시 산란계를 들여와야 하는 입장이다.

3월 - 4월경에는 부화한 지 1일 된 병아리를 산란 양계장으로 들여오도록 할 계획이다. '오스트로브나야' 생산 달걀 제품은 올 9월쯤에 생산돼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육계농장은 상황이 달라 러시아 농축산부 산하기관으로서 러시아 연방 공공기관 '전 러시아 축산보호 과학연구소'가 육계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은 육계를 보전하면서 계속 육계 생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недель школьники региона приходят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тобы узнать больше об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ях области.

«Ребята узнали, когда началось осво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то открыл судоходный пролив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Услышали об итога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Благодаря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экспозициям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знакомятся с развитием ведущих отрас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Школьники узнали больше о плавбазах, буровых установках, нов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Сахалин 국립대에서 <토요대학> 시작

Сахалин 국립대학이 고학년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진행하는 직업진로 지도를 시작했다고 대학교 측이 전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2월 17일(토)에는 직업진단, 고전문학, 스트레스와의 싸움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수업을 했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세계여행을 진행했다.

"경험이 많은 교사들과 사할린 국립대의 연구원들은 독특한 과학 세계의 안내자이다."라고 대학 측은 강조했다.

<토요대학> 기획은 상호작용 강의, 활동교실, 실습, 사업 시뮬레이션 게임, 세미나, 과학적 지식 견학, 사할린 국립대학 강의실에서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매해 이 토요대학에는 적잖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В СахГУ стартовал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начались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вузе.

В эту субботу, 17 феврал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вели занятия в сфер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борьбе со

стрессом, также для ребят прошло интерактив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странам мира и другое.

«Опыт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СахГУ становятся проводниками в увлекательный мир науки», - отметили в альма-матер.

Проект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убботы» - это интерактивные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актикумы, деловые игры, семинары, научно-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тренинги в стенах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ежедневно собирают немало учеников.

<나와가 축제>미식축제, 사할린에서 지속

<나와가 축제> 미식축제가 사할린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18개 요식업체에 방문하면 새로운 창작 메뉴로서 코류쉬카와 나와가로 만든 요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든 요리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며, 각 요리세트에는 사할린의 열매를 곁들인 코류쉬카와 나와가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9일까지 미식축제는 계속되며 사할린주 관광부는 올해는 요식업체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에 특별히 세심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했다고 언급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фест».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гости могут посетить 18 заведений, где им предложат блюда из корюшки и наваги в новом авторском прочтении.

Стоимость всех блюд – фиксирована. Главное, чтобы в каждом сет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корюшка или навага, хотя также допустима островная ягода.

Фестиваль продлится до 29 февраля. В Минтуризма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чт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рестораторы подошли особенно тщательно и творчески к проработке рецептов.

사할린주에서 프리다이빙 축제 개최

모네훈섬에서 프리다이빙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모네훈 자연공원 측이 전했다.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다이브쇼' 전시회가 열려 '모네훈섬'의 대표들이 프리다이빙 종목에서 수차례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프리다이빙연맹의 대표인 알렉세이 몰차노브와 만남을 진행하며 다가올 수중 스포츠에 대해 논의했다.

"프리다이빙 축제는 올 8월 - 9월 사이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 축제의 일환으로 프리다이빙 초보들을 위한 초급단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모네훈 자연공원 측이 전했다.

예전에 알렉세이 프리다이버는 잠수훈련 조직과 스포츠 관광 행사를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려고 모네훈을 찾아가 섬의 수중세계에 몰두한 가운데 그는 모네훈을 특별한 수중세계를 가진 독특한 곳이라 평가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по фридайвингу

На острове Монерон проведут фестиваль по фридайвингу.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одноименном природном парке.

В столице России состоялась выставка Moscow Dive Show, гд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строва Монерон» провели встречу с неоднократным чемпионом по фридайвингу, президентом федерации фридайвинга Алексеем Молчановым. Они обсудили предстоящее подводное плавание.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обучение первого уровня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фридайверов», - отметили в природном парке.

Ранее спортсмен прилетал на Монерон, чтобы оценить его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нировочных погружений 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Чемпион погружался в акватории острова. По его оценке, Монерон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с особым подводным миро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6-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